

《규원사화》, 민족부흥의 길 제시한 애국주의적 위서

위서(僞書)의 사회사 — 4

김삼웅 | <대한매일> 주필

단군조선시대의 역사를 기록한 《규원사화》는 편찬자와 편찬연대가 분명치 않은 미스터리의 책이다. 책의 서문에는 저술연대가 숙종1년이라고 추정할만한 문구가 있지만, 여러 학자들의 의견을 종합해 볼 때 한말이나 일제시대에 씌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책이 위서라고 해 그 역사서술의 관점마저 평가절하되는 것은 아니다. 어둠 속에 묻혀 있던 천년의 역사를 재구성, 민족의 긍지를 심어주려 했던 애국주의적 집필목적만큼은 상찬할 만하다.

《규원사화(揆園史話)》는 단군조선의 역사를 적은 역사서지만, 편찬자와 편찬연대가 분명치 않은 미스터리의 책이다. 지은이로 알려진 북애노인(北崖老人)의 실체도 알려지지 않았다. 흔히 이 책의 저술연대가 1676년(숙종2년)으로 추정되고 있는 것은 '상지 2년 을묘'(上之二年乙卯)라는, 지은이가 쓴 서문 때문이다. 지은이는 덧붙여 "때는 양관(兩亂)을 겪은 뒤"라고 해,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지난 어느 왕의 2년(乙卯)은 숙종 1년에 해당하고, 이를 '상지2년'이라 한 것은 숙종 1년이 숙종의 재위 2년째 되는 해기 때문이다.

'규원'이라는 책 이름은 지은이가 부아악(負兒岳:북한산) 기슭 자신의 서재 이름에서 딴 것이다. 지은이는 몇 번이나 과거에 응시했으나 낙방의 고배를 마시고 염세의 정을 느껴 여러 해 동안 방랑했다. 때가 마침 양대란을 겪은 뒤라 마을에는 전란의 흔적이 남아 있고 민심이 비등해서 안정을 이루지 못하는 시기였으므로 무엇인가 보람된 일이 없을까 생각하다가 오직 사서 편찬에만 일생을 바치기로 결심, 이 책을 편찬하게 됐다고 서문에서 밝혔다.

부강한 나라가 되는 길 제시해

그는 남으로 신라 천년의 고도인 경주를 비롯해 후백제의 고도인 전주, 백제의 고도인 공주와 부여를 두루 돌아보고 북으로 올라가서 예맥의 옛 도읍터를 찾아보고 금강산·구월산의 삼성사(三聖祠)를 거쳐 평양·의주 등 고적지를 돌아봤다. 의주에서는 압록강 건너 무한히 펼쳐진 대륙이 천여년 전에는 우리 강토였는데, 지금은 남의 수중에 들어 있어 안타까움에 눈물을 흘렸다고 썼다.

지은이는 이 책을 쓰는데 고려말의 선가(仙家) 이명(李茗)이 지은 《진역유기(震域遺記)》와 고려초 발해유민의 사서인 《조대기(朝代記)》를 참고했다고 밝혔다.

《규원사화》는 서문에 이어 <조판기(肇判記)> <태시기(太始記)> <단군기> <만설(漫說)>로 구성됐다. <조판기>에서는 환인과 환웅이 천지를 개창하는 과정을, <태시기>에서는 환웅이 동방의 군장이 돼 수 천년을 다스린 역사를, <단군기>에서는 환웅의 아들 환검이 최초의 단군이 된 뒤로 마지막 왕인 고열가(古列加)가 아사달의 망원경에 들어가 나라가 망하기까지의 47대 1,195년의 역사를 적은 것이다. <만설>에는 지은이의 도가적인 우주관·인생관·문화관이 전개되고 있다.

지은이는 <만설>에서 우리 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되는 세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첫째는 지리(地利)를 얻는 것이다. 즉 영토가 넓고 풍성해야 강국이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잃어버린 만주 땅을 다시 찾는 것이다. 둘째는 국민의 단결을 강조했다. 당쟁으로 백성이 분열돼 있으므로 강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대의를 좇아 단결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셋째는 우리의 지리와 기후에 알맞은 본성을 간직하고 장점을 잃지 않는 보성(保性)을 지켜야 한다고 했다. 현대식 표현으로는 민족성을 살려야 한다는 것이다. 지은이는 '보성'의 정신적 바탕을 마련하기 위해 이 책을 저술하게 됐다고 밝혔다.

내용상의 허구성 자주 지적돼

이 책은 대단히 애국주의적 입장에서 집필됐음을 살필 수 있다. 한영우 교수는 "민족고유 신앙인 신교의 입장에서 쓰여진 일종의 종교사화(宗教史話)인데, 엄밀한 문헌고증의 토대 위에서 구성된 역사책이 아니라, 주로 전승되어온 민족사료에 의거해서 엮어진 것이다. 따라서 상고사의 역사자료로서 가치를 지닌다기보다는 민족문화의 저류를 이루어온 민속적 역사인식의 한 모습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가치를 지니고 있다"(《규원사화》,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

전)고 평가했다.

그렇다면 이 책이 상고사의 역사자료로서 가치를 지니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내용 가운데 여러 부문에 '허구'가 드러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출간 연대도 17세기 중엽이 아니라 한말 또는 일제시대에 대중교 계통에서 집필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렇다면, 내용의 '허구성'에 대해 살펴보자. 여기서는 조인성 교수의 지적이 핵심을 찌르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규원사화》저자는 <단군기>에서 《고려사》광종 10년에 “압록강 밖의 여진을 백두산 밖으로 몰아내어 살도록 하였다”고 하였는데, 백두산이라는 이름이 여기에서 비로소 나타난다고 하였다. 그리고 개마산(蓋馬山)이 백두산과 같은 산임을 언어학적인 방법으로 밝히고 있다.

한편 1823년 《해동역사(海東譯史)》의 <지리고(地理考)>를 쓴 한진서(韓鎭書)도 《규원사화》저자와 같은 견해를 제시하였다. 그도 《고려사》<광종 10년조>에 “압록강 밖의 여진을 백두산 밖으로 몰아내어 살도록 하였다”는 구절이 나온다고 하면서 “백두의 칭호가 여기에서 비로소 나타난다”고 하였다. 그리고 《규원사화》에 나오는 것과 같은 방법, 같은 논거로써 개마산이 백두산임을 증명했다(山水 1, 白頭山).

그런데 《규원사화》저자와 한진서는 모두 성종 10년을 광종 10년으로 혼동하였다. 두 사람이 《고려사》에서 인용한 구절은 <광종 10년조>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종 10년 10월조>에 나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일치는 우연일까. 《고려사》를 인용한 두 사람이 모두 성종 10년을 광종 10년으로 혼동하였을 뿐만 아니라 똑같이 백두산이라는 명칭이 거기에서 처음 보인다고 설명하였고, 또 개마산이 백두산임을 같은 방법, 같은 논거로써 증명하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의 일치라고 볼 수 없다. 즉 위와 같이 양자가 일치하게 된 것은 둘 중의 하나가 《고려사》를 보고 그것을 나름대로 설명한 것이 아니라, 다른 하나를 참고하였기 때문임이 분명한 것이다.

만약 《규원사화》가 1675년에 쓰여진 것이라면 한진서가 《규원사화》를 보았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하지만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규원사화》가 알려진 것은 근대에 들어와서였다. 그리고

한진서의 《해동역사》<지리고>에는 전거가 된 모든 문헌이 제시되어 있지만, 거기에 《규원사화》는 들어 있지 않다. 따라서 한진서가 《규원사화》를 보지 않았음은 확실하다.

그렇다면 결국 《규원사화》저자가 《해동역사》<지리고>를 참고한 것이 된다. 여기서 우리는 1823년 이후에 쓰여졌으면서도 1675년에 저술되었음을 표방하고 있는 《규원사화》가 위서임을 알 수 있게 된다. 이 점은 다음을 검토함으로써 더욱 분명해진다.

만약 지금 언서(諺書)를 함께 쓴다면 반드시 이런 폐단이 없을 것이며, 초야의 우부(愚夫)라도 또한 (단군이 박달입금임을) 쉽게 깨닫게 될 것이니 문화의 계발이 또한 빨라질 수 있을 것이다(<단군기>).

이것은 《규원사화》저자가 후대의 역사가들이 한자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박달입금을 한자로 번역한 것이 단군임을 모르게 되었다고 하면서 제시한 의견이다(조인성, 《《규원사화》와 《환단고기》》, 《한국사시민강좌》 제2집).

민족의 금지 내세운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해
《규원사화》의 지은이는 <만설>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나라의 흥망은 뒤바뀐이 무상하니 지금 조선의 불행은 앞으로 행복해질 수 있는 실마리가 아니겠는가. 내가 인심이 분열되고 민기(民氣)가 가라앉는 것을 보니 붓을 던지고 길게 탄식하지 않을 수 없다. 슬프다. 환인(桓因)이여. 슬프다. 환인이여. 지금 한 조각의 진역(震域)과 한 줄기의 유민은 정차 어찌될 것인가. 장차 어찌될 것인가.

북애노인이 이 책을 저술했다는 숙종 2년에는 특별히 불행했던 일도 없고 나라가 망했던 것은 더욱 아니었다. 여기서 ‘한 조각의 진역’과 ‘한 줄기의 유민’은 일제의 식민지가 된 이후의 우리 민족의 처지를 가리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다. 또 내용 가운데 임진왜란을 당시에는 쓰지 않은 ‘임진지역’ (壬辰之役)으로 표현한 것이나 ‘선민’ (先民) ‘천주’ (天主) ‘민기’ (民氣) ‘강국지요’ (強國之要) 등의 용어가 나와 숙종시대의 문헌으로 보기는 어렵다.



《규원사화》는 여러 정황상 위서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그 내용이 민족의 자부심을 드높이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 사계에서 또 다른 평가를 받고 있다. 사진은 《규원사화》의 역간본.

송찬식 교수는 <위서변(僞書辯)>에서 다음과 같이 위작설을 제기했다.

나는 일전에 누워서 《규원사화》를 들고 오수를 청하다가 불각중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앉고 말았다. 아무래도 위서가 아닌가 의심이 들기 때 문이었다. 대저 그 내용이 단군에 관한 고급의 유사지설을 온통 모아놓은 듯한 느낌이었다.

한편 한말 일제시대 대중교계의 주장과 너무도 흡사하였기 때문이다. 더구나 인쇄본이 없는 데다가 북애노인이라는 부지소도래(不知所從來)의 사람이 지었다 하며 효종·숙종대의 저작임을 표방하였다. 주장의 근거가 되는 인용서목이 모두 지금 전하지 않을 뿐 아니라 《문헌비고》 등 한말 이전의 고문헌에 전혀 이름이 나타나지 않는 소위 기서(寄書)와 비기(秘記)들이다. 그 주장이 대개 그럴 듯하면서도 그 근거가 황당하여 의심을 품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것이다(《월간중앙》, 1977, 9).

이런 비판에도 불구하고 《규원사화》의 긍정적 측면도 적지 않다. “어둠 속에 묻혀진 천년의 역사를 재구성하여 민족의 금지를 심어주려고 쓰여진 것이지만, 그것이 사료로서 대접을 받으면 앞으로 많은 검증이 필요하다”(한영우). “본서의 저자가 한말이나 일제 치하에서 비분강개하던 면모를 대하는 듯하여 도리어 웃기를 여미지 않을 수 없었다”(송찬식). ●